

소득보다 빨리 느는 가계빚

국회에산정정책처 보고서 “장기 경제성장률 0.1%p 떨어뜨릴 것”

최근 가계부채는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했음에도 여전히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국가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포인트(p) 오를 때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0.1%p가량 감소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산업동향·이슈’ 제19호를 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가계신용 기준 1534조631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8% 증가했다. 2013년 1000조원을 넘어선 지 5년 만에 1500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2010년을 제외하면 매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명목 GDP 증가율보다 높았다.

가계부채 통계를 존재하는 2002년부터 2017년까지 15년간 가계부채

의 연평균 성장률은 7.9%로 같은 기간 GDP(5.6%)보다 높다.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 대책과 함께 총부채원리상환비율(DSR)·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시행하면서 2016년 4분기부터 증가율이 둔화세를 띠고 있지만, 여전히 소득보다 쌓이는 속도가 빠르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28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 5.8%는 2013년(5.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가계소득 증가율(3.9%)보다 여전히 높았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2.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3분기 기준 96.9%다. 국제결제은행(BIS)에 탑재돼 있는 43개국 중 스위스, 호주,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캐나다에 이어 7번째로 높다.

연금이나 노후 소득, 사회보장 시스템이 우수해 가계부채 충격에 대한 완충 기제를 갖춘 이들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는 신용 과잉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예정치가 1962~2017년 기간 연간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가계부채 비율이 1%p 오를 때 단기적으로는 소비가 증대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 증가율이 약 0.08%p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가정을 취할 때 실질 GDP는 장기적으로 약 0.1%p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연수에 따라 감소 폭은 0.09%p에서 0.104%p까지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삼미 경제분석국 경제분석관은 “단기적으로는 소비 증진을 통해 GDP 성장률에 기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일시적인 뿐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률에 부정적일 수 있다”며 “신규주택의 소비 이론에 따르면 가계부채 증가는 기대 항상 소득의 증가를 이끌어 현재 소비를 증대시킬 수 있지만,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부채 상환 부담은 소비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고 짚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가계 등 경제 주체들의 신용이 과도한 수준에 이를 때 금융위기가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커지며 경기 회복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역사적으로 외환위기나 카드채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등에서도 과도한 가계부채가 침체를 심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김 분석관은 “가계부채 비율 증가와 소비·성장 간 관계를 고려해 가계부채 비율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부채 수준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출 총량 규제 등은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재무적 부담을 늘릴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LG 디오스 식기세척기 체험단 모집 LG전자 가 오는 19일까지 'LG 디오스 식기세척기 100인의 신세계 체험단'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응모는 LG전자 이벤트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SNS 계정,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등을 입력하면 된다.

홈페이지 : www.i-honam.com
지역공감·미래창조·정론직필
湖南新聞
전화 062/224-5900 팩스 062/222-5548

최저임금 인상 등 무인화 바람 ↑...무인화株 관심UP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가중 돼 무인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무인화 관련주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기적으로는 키오스크 등 무인단말기 생산 업체를 추천했고 장기적으로는 무인 점포를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보안업체까지 수혜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이미존은 무인매장 이미존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021년까지 미국 전역에 3000여개 매장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알리바바와 징둥이 완전 무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향후 5년 안에 중국내 1000여 곳의 무인매장을 설치하고 해외의 500여개 이상의 매장을 연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서비스 업종에서의 무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점을 비롯해 편의점, 주차장 등에서 무인화 바람이 불고 있다.

국내 주요 3대 패스트푸드점의 키오스크 도입률은 60%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편의점 중 0.5%에 해당하는 20여곳이 무인화 시스템을 도입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주차장을 들어갈때와 나올때 주차장 이용시간에 따른 비용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기계는 대부분의 건물에 도입 돼 관련된 업체들의 매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무인화 관련 종목으로는 키오스크(무인화 기기) 시스템 등을 생산하는 한국전자금융, 신세계&C,



맘스터치는 전국 1130여개 가맹점 가운데 매장 입지, 인력 현황 등 타당성을 검토해 20여개 매장에 키오스크를 우선 설치한 후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글로벌텍스프리, 씨이테크, 푸른기술 등이 먼저 거론된다.

한국전자금융의 키오스크 매출액은 2016년 28억원, 2017년 60억원, 2018년 100억원을 달성한 데 이어 올해에는 138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키움증권 박상준 연구원은 “무

무인단말기 생산업체·무인점포 지키는 보안업체 매출 증가 예상 패스트푸드·편의점·주차장 무인화 확대...성장성 고려 매수추천

인주분기 대여료는 월 15만원 수준"이라며 "외식업계에서 키오스크 한 대를 들여놓으면 월 300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 손세훈 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무인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건비에 민감한 유통채널에 무인화 도입이 촉진 될 것"이라고

특히 무인화, 자동화 확대 추세에 따라 얼굴인식 출입 서비스 무인점포 보안 등 신규 보안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투자증권 양종민 연구원은 "올해 중반부터 에스원은 LG유플러스와 제휴해 결합판매(지능형 CCTV)를 시작한다. 2분기 성장성, 수익성 회복을 감안할 때 지금이 매수해야 할 적기"라고 말했다.

뉴시스

보험료 저렴한 미니보험 '확산' 이유는?

경제적 이유 크게 작용...보장내용 잘 살펴 맞는지 확인

보장 범위를 줄이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한 미니보험이 확산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대표 보험사들은 가격 거품을 확 줄인 미니보험 상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삼성생명의 미니 암보험은 핵심 질병만 보장하는 상품으로 다른 보험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획기적으로 저렴하다. 월 100원도 되지 않는 가격으로 위암, 폐암, 간암 진단 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미니보험 등장은 경제적 이유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가 어려워지며 장기보험을 해약하

는 소비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보험료와 해약 부담이 크지 않은 미니보험이 상대적으로 인기를 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료가 저렴한 미니보험은 20~30대 신규 고객층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 20~30대의 경우 대체로 건강하고 실용성을 중시해 언제 혜택을 받을지 모르는 보험상품에 매달 큰 금액의 보험료를 지불하는 데 있어 부담을 느끼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다만 미니보험은 가입자가 한 달에 지불하는 보험료가 몇 백원 몇

천원 수준으로 저렴한 만큼 보장금액 및 보장범위가 적고 보장기간도 짧다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전 문가들은 무조건 싸다고 미니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지양하고, 보장내용을 잘 살펴본 뒤 자신의 필요에 맞는 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현우 행복자신관리연구소 소장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미니보험의 경우 가입 절차가 간단하고 보험료도 저렴해 가입을 쉽게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며 "필요에 따라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또 "가입할 때 이름만 보고 미니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며 "스키보험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국내 여행자 보험과 다른 게 없는 상품도 있다. 이름 말고 보장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임산부 배려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